



강릉 소돌항

시리도록 푸르른 _____

‘당신의 취향에 맞는 바다는 어디입니까?’
바다 위 점점이 수놓인 섬들이 한 폭의 산수화를
연상케 하는 남해, 갯벌에서 생명력이 펄떡이는 서해...
그리고 시리도록 푸르른 파도가 가슴을 시원하게 만드는
강릉의 바다!



강릉은 동해안을 따라 20여 개 해변이 이어진다. 정동진처럼 전 국민에게 알려진 유명한 곳부터, 순긱해변처럼 강릉 사람들의 휴식처가 되어주는 조용한 해변까지 저마다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으니 시간을 들여 하나씩 방문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푸르른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고 싶다면 안목해변으로 향하자. 맑은 바닷물과 사계절 푸른 송림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곳이다. 해변을 따라 커피거리가 조성되어 20여 곳의 카페가 늘어서 있다. 아메리카노가 다 같지는 않고, 카페마다 다른 개성과 맛을 자랑하니 골라 마시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커피 축제가 열리는 봄과 가을에 찾는다면 커피 향 가득한 바다를 만끽할 수 있다.

- 1 드라마 <더 글로리>의 무대가 된 소돌항
- 2 드라마 <도깨비> 촬영장 인근의 주문진항
- 3 안목해변은 맑은 바닷물과 사계절 푸른 송림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한다

Travel Talk

소돌항

드라마 <도깨비>를 촬영한 주문진읍의 영진해변. 주인공이 훗날로 도깨비를 소환하는 장면을 촬영했던 방파제는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인증샷을 찍는 명소가 됐다. 최근에는 주목받는 촬영지가 하나 더 등장했으니, 바로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 등장한 소돌항이다. 문동은(송혜교 분)과 주여정(이도현 분)이 단란한 시간을 즐기던 곳으로, 동은이 캔맥주만을 남기고 사라져버렸던 빨간 등대가 바로 이곳에 있다.



주문진으로 가면 바다의 풍성함을 입으로도 즐길 수 있다. 동해안의 주요 어항기지로, 매일 350여 척의 어선이 드나들며 싱싱한 해산물을 실어나른다.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덕분에 오징어, 양미리, 명태, 청어, 멸치 등 다양한 어류가 많이 잡힌다. 항구 옆 수산시장에서는 갓 잡아올린 생선을 저렴한 가격에 회로 즐길 수 있다. 11~5월 방문한다면 살이 유독 짙 차오른 강릉 대게를 맛보는 것도 잊지 말 것.

좀 더 다이내믹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사천진해수욕장이 정답이다. 강릉의 청정 바다는 전국에서 찾아오는 서핑 명소지만, 그중에서도 사천진해수욕장은 파도의 힘이 좋아 서핑을 즐기기에 좋은 곳이다. 해변을 따라 다양한 서핑숍들이 늘어서 있어 취향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 보통 2시간 일정으로 진행되는 일일

클래스에 참여하면 초보도 파도 위를 누빌 수 있다. 낚시를 즐기기에 적당하다. 노래미와 가자미, 감성돔, 숭어 등 어류가 풍부해 어느 계절에 가도 좋다. 사천요트장이 있어 요트를 타고 바다 위를 누비며 색다른 여유를 즐길 수도 있다.



Flavours of Gangneung

먹고 추억하라

산치식당



아귀 간, 해삼 내장으로 파스타를 만든다? 신선한 해산물을 이용해 요리하는 산치식당은 다른 곳에서는 쉽게 만날 수 없는 조합으로 눈길을 끈다. 녹진한 아귀 간에 크림소스를 더한 아귀간크림파스타는 이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별미이니 꼭 맛볼 것 예약은 필수다.



강원도 강릉시 임영로163번길 9
0507-1326-6303

불개미식당



사장님이 집에서 담근 막장, 된장을 이용한 찌개와 반찬으로 상이 모자랄 정도의 백반을 차려낸다. '스텝' 대접의 감자밥에 나물과 각종 반찬 직접 찌서 더욱 고소한 참기름을 넣고 쓱쓱 비빈 비빔밥을 먹으면 입을 모아 추천하는 이유를 알게 된다.



강원도 강릉시 중앙시장1길 8
033-641-6917

시만차&시만향



강릉은 경주, 하동과 함께 한국의 3대 차(茶) 성지로 꼽힌다. 강릉만의 차 문화를 제대로 경험하고 싶다면 시만차로 향하자. 나무 향 가득한 공간과 차가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손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든다. 홍차와 레몬, 매실, 보드카 등이 들어간 티 칵테일도 별미다.



강원도 강릉시 임영로 192 2층
0507-1425-0131

Under the Sea

영양 가득 우리 수산물



양양군

마음까지 건강해지는 힐링 푸드 '연어' 국내 연어의 80%가 회귀하는 양양의 남대천에서는 연어소금구이를 비롯해 전, 스테이크, 수프, 찜 등 다양한 연어 음식을 즐길 수 있다. 연어는 스트레스 해소와 우울증 예방에 좋은 대표적인 힐링 푸드로 알려져 있다.

강릉시

쫄깃쫄깃, 감칠맛 나는 '무네(문어)'

향긋하게 문어 맛을 느껴려면 강릉식 문어초회가 제격이다. 문어를 삶아 채소를 썰어 넣고 조선간장과 양조간장, 들기름으로 무쳐낸 문어초회는 쫄깃하고 부드러운 감칠맛이 으뜸이다. 입안 가득 씹히는 문어는 특히 겨울에 맛이 좋고, 타우린이 함유되어 피로 해소에 효과적이다.



동해시

바다의 진미 '해물탕'

목호항 새벽시장에서 골라온 신선한 동해 바다의 대구내장, 물망치, 골뱅이, 소라, 대합, 생새우와 꽃게, 낙지가 커다란 냄비에서 끓는다. 푸짐한 비주얼에 눈이 먼저 놀라고, 칼칼한 냄새에 손가락을 잡게 만드는 동해시의 명물 '해물탕'은 목호항 일원과 동해시 전역에서 쉽게 맛볼 수 있다.

삼척시

뭇생겨도 맛은 최고! '곰치국'

삼척에는 이름만 말해도 절로 침이 고이는 맛있는 음식이 많다. 이 중에서 포악한 성격과 못난 외모의 곰치가 있다. 곰치가 사랑받는 건 오직 '맛' 덕분이다. 허벌에서 녹아 내리는 부드러운 속살과 시원한 국물이 끝내준다. 목은지와 함께 칼칼하게 끓여내는 삼척의 곰치국은 해장에도 제격이다.



원덕읍

입안에서 살살 녹는 '활어회'

원덕읍은 예로부터 물이 졸아 여족 자원이 풍부하고, 회가 맛있기로 유명한 곳이다. 원덕읍 임원항에는 펼쳐지는 활어들과 넉넉한 여촌의 인심이 가득하다. 동해안 청정 바다에서 나오는 오징어, 가자미, 멍게, 해삼, 소라, 우럭, 광어, 도미 등 활어회 모듬은 계절마다 제철 생선으로 최상의 신선도를 자랑한다.

백두대간의 정기를 담은 청정 고장

강원도 고성은 금강산에서 시작해 서쪽의 향로봉, 남쪽으로 마산봉, 미시령, 울산바위로 이어지는 백두대간 줄기로 둘러싸여 대자연의 향연이 펼쳐지는 곳이다. 어디 그뿐인가. 67km의 길고 긴 동해안을 따라 펼쳐지는 명품 해변, 그곳에서 맞이하는 장엄한 일출은 감동 그 자체다.

고성의 아아진 포구는 고성 8경으로 꼽을 만큼 운치 있는 2개의 정자를 안고 있다. 청간정과 천학정이 바로 그것인데, 두 곳 모두 일출과 월출이 아름다워 예로부터 수많은 시인 묵객이 다녀갔다. 겹겹이 밀려오는 파도가 암석에 부딪쳐 만들어내는 옥구슬 같은 포말, 바다를 삼킬 듯 활활 타오르는 일출이 장관을 연출한다. 운치 있는 비경이 곳곳에 녹아 있는 고장, 고성을 만나보자.



수협 안내

강원고성군수협
033-682-2072~3
거진항위판장
033-682-2074





풍어회집



수협 종매인인 주인장이 직접 입찰해 받아온 수산물을 재료로 사용한다. 자연산 모듬회는 네 종류의 회가 골고루 나오고,회는 싱싱해 식감이 살아 있다. 멍게, 문어, 소라, 새우 등 양도 푸짐하고, 매운탕을 찾는 손님도 많은 곳이다. 운 좋으면 열기(불락) 소금구이를 맛볼 수도 있다.

☎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심층수길 40-12
☎ 033-632-8582

영순네회집



전복이 들어 있는 특물회와 주인장이 직접 만든 오징어순대가 일품이다. 미역국과 함께 나오는 정갈한 반찬들도 입맛을 돋운다.회는 도통하게 썰어 한 점만 먹어도 입안 가득 바다가 느껴진다. 성게알비빔밥도 놓칠 수 없는 일미다.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봉포해변길 99
☎ 033-633-8887

성진회관



국내 최대 명태 황금어장인 고성군에서 생태찌개 맛집으로 알아주는 노포다. 한자리에서 40년 이상 장사한 주인장의 노하우가 그대로 한 그릇에 담겼다. 생태찌개에는 고성군의 특산물인 생태와 두부, 파 외엔 양념을 거의 하지 않지만, 시원하니 맛있다.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탄진로 99
☎ 033-682-1040



능파대 스쿠버다이빙

능파대 일대는 바닷속이 아름답기로 소문나 스쿠버다이빙으로 유명하다. 암반 지대가 있으며 물이 깨끗해 시야가 맑고 해초, 산호, 문어, 방어 등 어류도 다양하다.

☎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문암진리 134-17
☎ LF문암다이브리조트 010-9326-8162



고성통일명태축제

고성통일명태축제는 어민의 희망으로, 건강 먹거리로 사랑받아온 명태의 풍어와 안전 조업을 기원하는 축제의 한마당이다. 매년 10월에 열린다.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항길 4-11
☎ 고성명태축제위원회 033-682-8008

화진포해맞이축제

고성군에서는 매년 1월 1일 새해를 맞아 모두의 소망을 기원하는 해맞이 축제를 연다. 새해의 아침을 여는 환희의 순간을 화진포해변에서 맞이해보자.

☎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화진포길
☎ 고성군 관광문화과 033-680-3362



정취 어린 풍경이 맞아주는 곳

고성군 죽왕면은 아름다운 해변이 가까이 있는 곳으로, 바다와 산 그리고 호수가 어우러져 천혜의 자연환경을 만날 수 있다.

송지호는 고성 8경 중 하나로 울창한 송림과 청명한 물빛이 인상적이다. 죽도와 자연 호수가 어우러져 경관이 수려할 뿐 아니라, 따뜻한 남쪽으로 날아가던 겨울 철새가 머물다 가는 철새 도래지다. 겨울이면 청동오리와 기러기 떼, 천연기념물인 고니가 호수로 날아드는데, 송지호 관망타워에서 관찰할 수 있다. 꼭 겨울철이 아니더라도 봄과 가을에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나그네새도 볼 수 있다. 또 죽왕면은 조용하고 한적한 해변이 여럿 있어 안락한 여행을 즐기기에 좋다. 푸른빛 물결 위로 햇살이 넘실거리며 춤추는 이곳만의 낭만을 느껴보자.



수협 안내

죽왕수협
033-632-0024
수산물직매장
033-637-0215
가진항위판장
033-632-0024



부부횃집



'물회가 거기서 거기지'라는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물회 맛집이다. 오독오독 씹히는 물가지미물회가 두고두고 생각난다. 회덮밥, 우렁매운탕도 빼놓을 수 없는 별미다. 특히 회덮밥은 회를 시킨 건지 회덮밥을 시킨 건지 알 수 없을 만큼 그릇 한가득 회가 넉넉히 들어 있다.

☞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가진해변길 88
☎ 033-681-0094

광범이네횃집



생선회와 해삼을 아낌없이 썰어 넣은 매콤하면서도 새콤한 물회가 이 집의 대표 메뉴다. 밀반찬으로 나오는 감자조림도 '단짠'이 어우러져 식욕을 돋운다. 국수사리는 무료로 제공하니 새콤한 국물에 양껏 넣어 먹으면 든든한 한 끼가 된다.

☞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가진길 27
☎ 033-681-2696

금강산도식후경



전복물회, 전복&차돌짬뽕파스타, 통오징어짬뽕파스타가 대표 메뉴다. 전복을 비롯한 해산물이 아낌없이 들어간 물회와 바다와 육지의 맛있는 식재료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파스타가 오늘의 다이어트를 내일로 미루게 한다. 실내 창문이 통유리라 오션뷰도 덩으로 즐길 수 있다.

☞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해변길 95
☎ 033-633-8866



여름해변축제

매년 강원도 고성군 해변에서는 수많은 축제를 만날 수 있다. 백도해변에서는 '가리비 축제', 반암해변에서는 '조개잡이 축제', 송지호해변에서는 '활어 맨손잡기 축제' 등이 열린다.

☞ 강원도 고성군 해변 일대
☎ 고성군 관광문화과 033-680-3356



해안선 레저스포츠 페스티벌

매년 8월이면 오후리 봉수대 해변에서 해안선 레저스포츠 페스티벌이 열린다. 카약, 래프팅, 스노클링 등 다양한 해양 레저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봉수대길 10-22
☎ 고성군카누연맹 033-636-6661

오호 어촌체험

청명한 물빛과 고운 모래로 유명한 송지호해수욕장이 있는 오호 마을. 배낚시, 맨손 오징어잡이, 후릿그물, 통발 등 다양한 어촌 체험을 즐길 수 있다.

☞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심층수길 40-20
☎ 오호어촌체험마을 033-631-2552



동해와 설악산을 한 품에

속초, 서울에서 2시간이면 된다. 설악의 위풍당당한 위용, 기세 좋게 너울지는 푸르른 동해를 만나기 위해서 말이다. 무엇보다 큰 이동 없이도 산과 바다, 호수와 온천 모두를 즐길 수 있는 것이 속초 여행만의 매력, 바다와 접해 싱싱한 해산물, 설악산에서 내어준 다채로운 식재료 덕분에 산해진미가 가득해 식도락 여행도 즐길 수 있다. 또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를 온몸으로 맞서는 수상 레포츠는 물론 계절 따라 도심 곳곳에서 열리는 축제가 많아 즐길 거리도 풍성하고 체험 거리도 다양하다. 강원도 여행객의 모든 로망이 현실로 실현되는 오감 만족의 도시 속초, 발길 닿는 곳마다, 그곳에 마음을 묶어두고 올지도 모르겠다.



수험 안내

속초시수험
033-630-7700~5
속초항(동명)위판장
033-633-1284
속초항(본소)위판장
033-630-7721



속초등대전망대
©속초시청



속초 영금정
©속초시청



설악항20호 백운호



낚시배를 직접 운영하는 횡집으로 그날 잡은 생선과 해산물을 바로 맛볼 수 있다. 광어, 우럭, 참돔 등 각종 생선회는 물론 쥐치, 복어, 문어, 오징어까지 제철 해산물을 만날 수 있다. 싱싱한 바다 음식을 믿고 먹을 수 있으며, 내어주는 회의 양이 푸짐하다. 생선구이나 매운탕 맛도 훌륭하다.

☞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3666
☎ 010-7346-3155

완도회식당



속초 현지인 맛집으로 신선한 오징어와 살얼음 육수로 손님에게 만족도가 아주 높은 곳이다. 항상 대기표를 뽑아야 할 만큼 맛으로 손꼽을 만하고, 음식은 주문 후 빠르게 나오는 편이다. 새콤달콤한 국물에 면이나 밥을 말아 먹으면 그야말로 환상적이다.

☞ 강원도 속초시 먹거리4길 21
☎ 033-631-1418

봉포머구리집



모듬물회를 시키면 그 안에 바다가 다 들어 있다. 전복, 광어, 오징어, 방어, 비단명게, 고동, 소라, 도치, 꼬시래기, 성게알까지. 모듬회를 시킨 것처럼 다양하게 맛볼 수 있다. 머구리는 속칭 '잠수부'를 뜻하는 말로, 직접 잡은 신선한 자연산 재료를 사용하는 맛집이다.

☞ 강원도 속초시 영랑해안길 223
☎ 0507-1404-2026



설악문화제

1966년 제1회 설악제로 시작된 유서 깊은 향토 축제다. 고대의 제천행사를 기원으로 하는 설악소사(설악산신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설악산 일원에서 등반대회, 산악 관련 전시, 문화 행사 등이 열린다.

☞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51 설악로데오거리, 설악산 일원
☎ 속초문화관광재단 033-636-0670



영랑호 스토리 자전거

'아름다운 자전거길 100선'에 선정된 자연호수 영랑호 둘레길을 자전거로 돌며 속초의 역사와 문화, 자연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보광사-충혼탑 코스와 범바위-공룡바위를 도는 코스 두 가지다.

☞ 강원도 속초시 영랑호반길 140-1
☎ 영랑체협사업단 033-637-7009

스쿠버다이빙

속초 동명항 인근에서 안전하게 스쿠버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 교육을 위한 실내풀장과 세미나교육장을 갖춰 초보자도 부담 없이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 강원도 속초시 영랑해안9길 7-1
☎ 속초스쿠버센터 033-635-3373



활기찬 생명력이 가득한 속초의 항포구

속초 해안에는 생명력 넘치는 항포구가 즐비해 있다. 동해안의 풍요로운 먹거리를 실은 수많은 어선이 북적이는데, 그중 말발굽처럼 둥근 대포항은 설악산 기슭의 깨끗한 바닷가에 자리하고 있으며 남쪽에서 속초로 들어오는 관문이다. 동해안에서 가장 먼저 활어 난전이 열린 곳으로 시원한 바다와 맛있는 활어회를 즐길 수 있어 유명하다. 외옹치항은 대포항 근처에 있는 자그마한 규모의 항구로 현지인이 주로 찾아 속초 고유의 어촌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외옹치항-외옹치해변-속초해수욕장으로 이어지는 길에 해안 뱃길을 설치해 산책로 '바다항기로'를 조성했는데 상쾌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비경을 감상하는 것도 속초의 매력에 취할 수 있는 코스다.



수협 안내

- 대포수협
033-631-1561
- 수협바다마트
033-635-6264
- 대포항위판장
033-631-1562

대포항

- 장사항
- 속초관광수산물시장
- 아바이마을
- 청초호
- 외옹치해수욕장
- 대포항
- 대포수협
- 수협바다마트
- 대포항위판장



대포항 ©속초시청



속초 마리나 요트 투어 ©속초마리나 요트앤클럽



일출봉횡집



대포항, 주문진항, 물치항 등에서 매일 새벽 경매를 통해 모셔온 신선한 활어만 사용하고 있다. 쫄깃하고 싱싱한 회를 맛볼 수 있는 것은 물론, 곁들이 음식도 정성스럽다. 개수만 많은 상차림이 아니라 싱싱한 제철 해산물이 제공돼 사계절 다른 상차림을 즐길 수 있다.

☎ 강원도 속초시 대포항희망길 105
☎ 033-635-2222

대포항 명가횡집



2~3일에 한 번씩 배에서 바로 받은 대게, 킹크랩으로 손님들을 맞이한다. 대게, 제철 회, 싱싱한 해산물로 구성된 대게 세트메뉴에는 15가지 밑반찬이 따라온다. 여기에 매운탕과 계북음밥까지 먹으면 배 속이 바다로 팍 찬 듯한 느낌이다.

☎ 강원도 속초시 대포항희망1길 91
☎ 033-635-0333

대포대게회직판장



입구에 들어서면 신선한 갑각류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대형 수족관이 눈길을 끈다. 주인장이 직접 잡아온 것들이다. 수족관에 있는 대게를 직접 골라서 주문할 수도 있다. 대게, 홍게, 랍스터, 킹크랩 등을 찜으로 주문하면 회, 물회, 해물, 호박죽, 아바이순대, 계튀김, 오징어젓갈 등 밑반찬이 푸짐하게 제공된다.

☎ 강원도 속초시 대포항희망길 51
☎ 033-638-3771



테라크랩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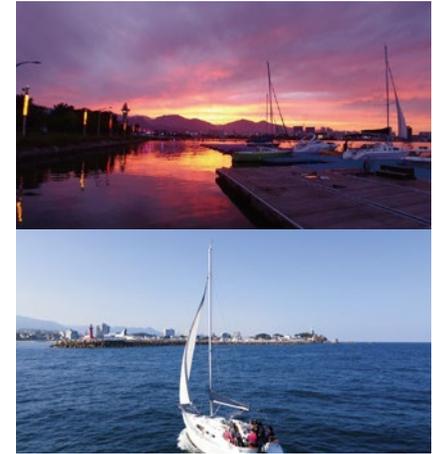
우리나라의 유일한 게 생태체험관이다. 바다에서 태어나 육지에 가서 생활하는 독특한 생태를 가진 도둑게를 누구나 쉽게 보고 만지며 배울 수 있다.

☎ 강원도 속초시 학사평2길 16
☎ 테라크랩팜 033-636-6363

장사 어촌체험

배낚시는 물론 오징어 요리 배우기, 오징어 해부하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낚시에 관한 모든 장비가 제공돼 별도로 준비할 것은 없다.

☎ 강원도 속초시 장사항해안길 58
☎ 장사어촌체험마을 033-632-9796



속초 마리나 요트 투어

양쪽으로 균형 잡힌 선체 구조의 요트에서 선상 파티를 즐길 수 있다. 넓은 갑판에 설치된 해먹에 누우면 바다 위에 누워 있는 듯한 여유와 바람의 세기에 따라 스릴을 즐길 수 있다.

☎ 강원도 속초시 철새길 106
☎ 속초마리나 요트앤클럽 033-633-7733



비취색 바다가 영롱한, 해돋이의 고장

도을 양(襄), 별 양(陽)을 써서 예로부터 해가 떠오르는 고장이라 알려진 양양. 설악과 동해의 푸른 숨결로 가득 차, 마음이 동하는 풍광을 자주 맞닥뜨리는 곳이다. 해수관음보살의 자비로운 미소가 서려 있는 낙산사도 그중 하나. 영롱한 비취색 바다, 해송의 짙은 솔 내음을 느끼며 걷다 보면 의상대, 흥련암을 만날 수 있다. 바다와 맞닿는 절벽에 자리하고 있어 일출 명소로도 유명하다.

양양에서 가장 예쁜 해를 담은 해담마을, 한 폭의 수채화인 양 고즈넉한 정취를 품은 남대천, 산중미인 설악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 대청봉 등 양양에서는 발길 옮기는 곳마다 청정한 천혜의 자연이 맥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핑의 성지로 떠오른 해변도 이곳에 있으니, 양양으로 떠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아니한가.



수협 안내

양양군수협
033-670-8903~5
낙산백화점
033-670-8928
남해항위판장
033-670-8921



Taste
바다 한 상 眞맛집
✂

수산항물회



동호리해수욕장 앞바다에서 주인장이 직접 잡아올린 영양가 높은 썰복(비단조개)과 문어가 주재료다. 썰복문어물회는 국물이 맵거나 시큼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적당히 칼칼하다. 썰복국은 고추장 베이스 짜개인데 넉넉하고 쫄깃쫄깃한 썰복에 시원한 장맛이 일품이다.

☞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선사유적로 185
☎ 033-671-0750

전복팔도식당



모든 생선은 매일 양양 기사문항에서 가져온 일등 재료만 사용한다. 여기에 어머니로부터 배운 전라도 음식 솜씨 그대로가 식탁에 오른다. 곰치로 끓이는 물곰탕의 시원한 맛은 가히 일품이라 할 만인데, 맛의 비밀은 이 집에서만 재료로 사용하는 미나리에 있다. 주인장의 푸짐한 인심은 덤이다.

☞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낙산사로 41
☎ 033-672-4463

해초



시원하고 칼칼한 섭취를 맛볼 수 있다. 냉동 썬이나 수입산 썬을 사용하지 않고 매일 생물로만 손님을 맞이한다. 이 때문에 해상 날씨가 좋지 않거나 다른 사정에 의해 썬이 없을 때는 영업을 하지 않으니 출발 전에 전화 문의를 하는 것이 좋다. 입맛 까다로운 이들도 흡족하게 돌아갈 수 있다.

☞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해대로 2527
☎ 033-673-5050

Editor's Choice
두고두고 추억이 될 즐길 거리
⚓



양양 서피비치

서핑 전용 해변과 스위밍존, 빈백존, 해역존, 힐링존 등 온전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됐다. 이국적인 풍광을 느낄 수 있으며 요가, 서핑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다.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조대해안길 119
☎ 서피비치 1522-2729



멍비치

반려견과 보호자가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해변이 있다. 국내 유일 반려견 해수욕장으로 150m 정도가 전용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부지 내 노지 캠핑장에서 야영도 할 수 있다.

☞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광진리 78-20
☎ 양양군 종합관광안내소 033-670-2397

양양연어축제

매년 10월에 열리는 양양연어축제에서 남대천으로 거슬러 올라오는 연어들의 힘찬 몸짓과 생애를 느껴보자. 연어 맨손잡기, 용왕제 등 다양한 행사로 진행된다.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 226-2
☎ 양양문화재단 033-671-3803, 7802



향긋한 낭만의 도시

다섯 개의 달이 뜬다는 비밀을 가진 정자 경포대. 달빛이 쏟아지면 하늘, 바다, 호수, 술잔 그리고 사랑하는 임의 눈동자에 달 다섯 개가 동시에 뜬다 하여 동해안 최고의 달맞이 장소로 꼽힌다. 우아한 기품이 넘치는 경포대에 오르면 윤슬 반짝이는 경포호, 푸른 물결 넘실대는 경포해변이 아스라이 펼쳐진다.

선교장은 조선시대 전통 사대부 가옥 양식을 그대로 간직한 300년 역사의 고택이다. 탐스러운 능소화, 연못 가득 연꽃이 피어오르는 계절이면 이곳의 정취는 절정에 이른다.

향긋한 커피 한 잔에 낭만 넘치는 풍경을 오롯이 담을 수 있는 강릉. 시간이 빛어낸 아름다운 풍광과 아늑하고 포근한 분위기가 감도는 이곳에서 무뎠던 감성이 새롭게 깨어난다.



수험 안내

강릉시수험
033-660-6380
강릉수산물종합판매장
033-660-6356
주문진항위판장
033-660-6312



Taste

바다 한 상 眞맛집



해미네집



주문진항에서 나오는 생선만을 강릉시수협에서 공수해 사용한다. 원하는 재료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날은 식당을 아예 열지 않는다. 생선구이도 생물만 사용한다. 세꼬시 역시 보통은 기계로 내리지만, 이 집은 일일이 손으로 다진다. 노부부의 정직한 음식 내공을 맛으로 느낄 수 있다.

- ☞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항구2길 3-1
- ☎ 033-661-3238

강문어회합집



직접 입찰을 통해 생선을 들여오기 때문에 저렴하게 자연산 회를 맛볼 수 있다. 30년 이상 질 좋은 해산물을 제공해 지역 주민들도 자주 찾는 맛집이다. 고급스러운 분위기만큼이나 밑반찬도 정성스럽게 나온다. 몇 발자국만 나가면 백사장이 이어질 정도로 바다와 가까워 오션뷰와 함께 즐길 수 있다.

- ☞ 강원도 강릉시 창해로 348
- ☎ 033-653-0025

강문가



30년 전통을 이어가는 물회 맛집이다. 특제 물회 소스와 매일 새벽마다 들어오는 싱싱한 활어와 해산물, 그리고 직접 운영하는 흥게어선 선주 직판으로 가성비 좋은 메뉴를 맛볼 수 있다. 살이 딱 찬 흥게를 제대로 맛보고 싶다면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 ☞ 강원도 강릉시 경포로463번길 29
- ☎ 0507-1348-2622

Editor's Choice

두고두고 추억이 될 즐길 거리



경포아쿠아리움

국내 최초로 호수와 바다, 숲이 어우러지는 야외 체험시설을 갖춘 아쿠아리움이다. 지역 내 교육기관과 연계해 수중생물 보호시스템을 구축했으며, 255여 종 2만5,000여 마리의 생물을 만날 수 있다.

- ☞ 강원도 강릉시 난설현로 131
- ☎ 경포아쿠아리움 033-645-7887



정동진 레일바이크

강원도 여행의 백미로 손꼽히며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레저스포츠다. 정동진역을 출발해 전 구간 시원한 바닷바람을 느끼며, 바다 경치를 즐길 수 있다.

- ☞ 강원도 강릉시 정동역길 17 정동진역
- ☎ 정동진레일바이크 033-655-7786

강릉커피축제

매년 가을, 향긋한 커피 향과 함께하는 강릉커피축제가 열린다. 전국 유명 커피업체들이 참석해 커피 무료 시음행사를 열고, 커피 명인들에게 직접 커피에 관한 노하우를 얻는 세미나도 열린다.

- ☞ 강원도 강릉시 수리골길 102
- ☎ 커피축제사무국 033-647-6802



신선이 다녀간 절경이 가득

이름부터 드넓은 바다를 품은 동해시. 일망무제의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지고, 바다 한가운데 삐죽 솟은 촛대바위에 아침 해가 걸린다. 선경(仙境)이다. 신선이 노닐 만큼 빼어난 경치를 지녔다는 무릉계곡은 또 어떤가. 산과 바다, 계곡과 동굴을 모두 품은 무릉도원 동해는 그리 멀지 않다.

동해안 대표 항구인 묵호항에 아침 일찍 가면 어시장에서 갓 잡은 싱싱한 해산물을 구할 수 있고, 생동감 넘치는 경매 현장도 구경할 수 있다. 논골담길은 최근 동해시의 떠오르는 감성 여행지다. 마을 이야기를 벽화와 조각 작품에 담아 여행객을 부른다. 논골담길 '바람의 언덕'은 묵호등대와 더불어 마을 전망 장소로, 묵호항과 바다 풍경이 눈에 가득 찬다. 잠깐 있다 가려다, 한참을 머물게 된다는 매력 도시 동해에서 나만의 힐링 스폿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



수험 안내

동해시수험
 033-532-2019
수산물직매장
 033-532-2018
묵호항위판장
 033-532-2001



Taste
바다 한 상 眞맛집
✂

동백식당



항상 신선한 해물 요리를 맛볼 수 있다. 대표 메뉴인 해물짬에는 낙지와 꽃게, 소라, 가리비 등 다양한 해물이 큼직하게 들어가 있다. 특히 해물짬은 맛이 아주 깔끔한데, 흔히 사용하는 전분을 조금만 넣고 슬라이스한 강원도 감자를 많이 넣기 때문이라고 한다.

☞ 강원도 동해시 목호시장길 24
☎ 033-532-0661

칠형제곰치국



신선한 곰치를 직접 어판장에서 받아와 묵은지로 국물을 낸다. 시원하고 칼칼한 맛이 일품이다. 일곱 형제를 키워낸 시어머니의 뒤를 이어 며느리가 매일 곰치국을 끓인다. 폭 삭힌 가지미식해가 기본 밑반찬으로 제공되는데 곰치국과 잘 어울린다. 곰치국 외에도 얼큰한 찌개들을 맛볼 수 있다.

☞ 강원도 동해시 일출로 131-1
☎ 033-533-1544

동북횡집



물회와 복지리 맛집이다. 특히 물회는 오징어와 가지미회가 듬뿍 들어 있어 바다의 싱싱함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간이 세지 않은데도 비린 맛이 전혀 없어 누구나 맛있게 즐길 수 있다. 밑반찬으로 나오는 도루묵조림은 정말 부드럽고 달다.

☞ 강원도 동해시 일출로 95
☎ 033-532-7156

Editor's Choice
두고두고 추억이 될 즐길 거리
⚓



동해무릉제

시민의 화합을 목적으로 1984년부터 매해 열리고 있는 동해시의 대표적인 축제다. 전야제를 시작으로 제천행사, 개막식, 민속경기, 체육행사, 문화예술행사, 체험행사 등으로 진행된다.

☞ 강원도 동해시 덕골길 10 동해웰빙레포츠타운 일원
☎ 동해문화관광재단 033-532-1945

바다낚시 체험

전천관리장, 묵호항, 어달항, 대진항 등에서는 어선을 타고 바다로 나가 자연환경을 구경하며 낚시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 강원도 동해시 대진항, 어달항, 묵호항 인근
☎ 묵호어촌계 010-9158-0327



도재비골 스카이밸리

묵호등대와 월소택지 사이에 있는 도재비골에 동해의 아름다운 풍광을 즐길 수 있도록 전망시설 및 각종 체험시설을 조성한 관광지다.

☞ 강원도 동해시 묵호진동 2-109
☎ 도재비골 스카이밸리 070-8883-4708



바다와 계곡, 동굴이 어우러진 삼척

삼척시에는 한류의 명소가 된 바다가 두 곳 있다. BTS의 앨범 <버터(Butter)> 재킷을 촬영한 맹방해변과 영화 <헤어질 결심>의 마지막 장면을 촬영한 부남해변이다. 최근 들어 찾는 이가 부쩍 늘었다고 하는데, 삼척에는 오래전부터 풍류객이 줄이어 찾아오던 곳이 있다.

관동팔경의 제1경으로 꼽히는 죽서루는 깎아지른 듯한 오십천 층암절벽 위에 세워졌다. 정절은 죽서루 아래로 흐르는 오십천에 비친 태백산맥의 경치가 수려해 임금께 보여주고 싶다고 노래했을 정도. 장호·용화 해변도 동해안에서 아름답기로 소문났다. 장호해변과 용화해변을 오가는 길이 874m의 삼척해상케이블카를 타면 이곳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특히 케이블카 중간에 줄을 받쳐 드는 철타이 없이 풍경을 고스란히 즐길 수 있다. 에메랄드 바다가 수평선 넘어 끝없이 펼쳐지고, 신비한 기암괴석이 즐비한 해변의 풍경을 하늘에서 즐겨보자.



수험 안내

삼척수험
033-572-1014
삼척항(본소)위판장
033-572-1015



맹방해수욕장 ©삼척시청



해양레일바이크 ©삼척시청



대게왕국



조선시대 허균 선생이 조선 팔도의 명산 식품에 대해 쓴 <도문대작>에 소개됐을 만큼 삼척의 대게는 예로부터 유명했다. 삼척항 대게거리에 있는 대게왕국은 그날 잡은 대게를 바로 썰 낸다. 동해안에서 갓 건져올린 싱싱한 활어회와 해산물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음식이 정갈하고 푸짐하다.

☞ 강원도 삼척시 새천년도로 55
☎ 033-573-8185

정라횃집



삼척 시내에서 40년 이상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도루묵구이 맛집이다. 구이를 주문하면 바삭 익힌 도루묵이 상 위에 오른다. 자그마한 도루묵에 어찌나 알이 꽉 차 있는지 입에 물면 오독오독 소리와 함께 씹힌다. 그때마다 번지는 바다 내음이 일품이다.

☞ 강원도 삼척시 대학로 28
☎ 033-573-3670

삼고정문



간장 정식을 시키면 새우장과 전복장, 문어장과 함께 세발나물이 나오는데, 일단 비주얼부터 군침이 나온다. 먹음직스럽게 담근 문어장을 감과 함께 싸 먹으면 바다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세발나물과 고추냉이를 넣어 먹는 것도 별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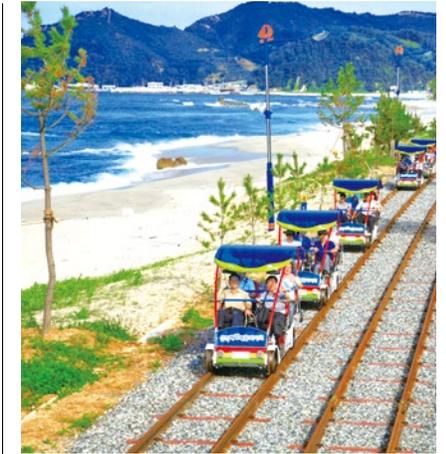
☞ 강원도 삼척시 새천년도로 673-1
☎ 0507-1402-8686



공촌리 어촌체험

싱싱한 해산물을 직접 잡을 수 있고 카누, 스노클링도 즐길 수 있다. 가족과 친구, 여럿이 함께 찾아 한여름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에 충분하다.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공촌리 194-1
☎ 공촌어촌체험마을 010-9316-5767



삼척해양레일바이크

아름다운 동해의 해안선을 따라 5.4km 복선으로 운행되고 있다. 푸른 해송과 백사장, 기암괴석을 감상할 수 있으며 루미나리에와 레이저 쇼도 즐길 수 있다.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공양왕길 2
☎ 삼척해양레일바이크 공촌정거장 033-576-0656

삼척대게축제

삼척시 대표 수산물 대게를 알리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2~3월 살이 꽉 차고 풍미 가득한 대게를 만날 수 있다. 쿠킹쇼, 이벤트, 체험, 축하공연 등 볼거리가 풍부하다.

☞ 강원도 삼척시 새천년도로 100
☎ 관광안내소 033-575-1330



탁 트인 바다가 반겨주는 인심 좋은 마을

강원도 최남단, 삼척시 원덕읍에는 알찬 볼거리가 넘친다. 원덕읍 월천리에는 하천 한가운데 '솔섬'이라는 육지섬이 있다. 월천 하구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점에 모래톱으로 만들어진, 사시사철 푸른 작은 섬이다. 해가 뜨고, 달이 떠오를 때 꿈을 꾸는 듯한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해 유명세를 탔다. '수로부인 헌화공원'은 <삼국유사>에 수록된 '헌화가와 '해가'에 등장한 수로 부인의 이야기를 토대로 임원항 뒤편 남화산 정상에 만든 공원이다. 노인이 절벽 위 꽃을 꺾어다 바치고, 바다에서 갑자기 해룡이 나타나 납치해갈 정도로 절세미인이었다는 수로 부인의 설화를 현대 조각품으로 재해석했다. 탁 트인 동해 바다를 감상하기 좋은 곳으로 맑은 날에는 울릉도를 조망할 수도 있다.



수협 안내

원덕수협
033-573-5632
수산물판매장
033-573-5630
임원항위판장
033-573-5632



Taste

바다 한 상 眞맛집



미조리횃집



예술의 경지로 여겨질 만큼 얇게 썰린 오징어와 오이가 듬뿍 들어간 물화가 인기다. 오징어는 두꺼우면 육수와 겉돌기 때문에 바늘귀에 들어갈 정도로 얇게 썬다고 한다. 직접 담근 고추장에 조청과 과일을 넣어 맛을 낸 육수가 손님을 모으는 또 하나의 비법이다.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항구로 23
033-573-3588

방파제식당



한번 맛보면 잊히지 않는 대구뽕찜 명가다. 요리를 시키면 10가지 정도의 밑반찬이 나오는데, 백반집을 방불케 한다. 파김치, 버섯볶음, 멸치볶음, 오징어젓갈 등 정갈한 반찬이 입맛을 한껏 끌어올린다. 대구뽕찜은 국물이 꽤 많아 매운탕에 가까운데 칼칼하면서도 깊고 시원한 맛을 낸다.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항구로 33
033-572-5425

해돋이식당



매콤한 맛이 당긴다면 장칼국수를, 시원한 맛을 원한다면 바지락칼국수를 시키면 된다. 무엇을 주문하던 누룽지를 연상시키는 해돋이 식당만의 감자전은 필수로 먹어보길 권한다. 주문한 음식을 받아보면 2인분 같은 1인분의 양에 놀라고 얼큰한 국물과 쫄깃한 면발에 두 번 놀란다.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항구로 31
033-575-6476

Editor's Cho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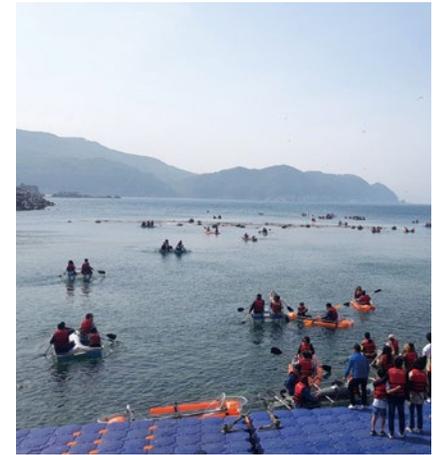
두고두고 추억이 될 즐길 거리



임원항 배낚시 체험

임원항에서는 배낚시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가자미, 대구 등 신선한 동해안 해산물을 내 손으로 직접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항구로 34-24
해양수산과 033-570-3915



장호항 투명 카누

장호어촌체험마을에서는 투명 카누 체험을 할 수 있다. 카누가 투명해 시가마다 다른 해양 생물을 만날 수 있다. 옷이 조금 젖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장호항길 111
장호어촌체험마을 010-8486-8954

원덕 호산시장

매월 5일과 10일 오일장이 열리는 전통시장이다. 인근 임원항이 있어 지역 어민들이 직접 잡은 어물을 살 수 있어 관광객에게 인기가 많다.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중앙로 10-1
삼척시 지역경제과 033-570-3351

